

인삼시장 동향 (일본)

조사자 : 유 명근

조사일 : 2014. 5. 16

1. 수출동향

- 최근 10년간 대일 인삼류 수출은 '08년까지 감소세가 이어지다가 한국인삼공사의 마케팅 강화 및 한류 등에 힘입어 2009년 이후 증가세로 전환됨.
 - * 대일 인삼 수출액 : ('04) 32.8백만불 → ('08) 26.8 → ('09) 34.5 → ('12) 36.6 → ('13) 32.3
- 제품별로 보면 2008년까지는 백삼제품의 수출비중이 높았으나 2009년 이후 홍삼 제품 비중이 2/3이상 차지하고 있음.
 - 과거는 건강식품 원료용 백삼제품이 많았으나 최근 일반 소비자용 홍삼제품이 주류를 이루고 있음.
- 금년 4월말 현재 수출액은 11.3백만불로 전년동기대비 5.8% 증가함

2. 일본시장 동향

- 일본의 전체 인삼제품 시장규모는 약 200억엔 정도로 추산되고 있음.
 - 인삼시장규모는 일본의 2012년 건강식품·건강보조제 시장규모 1조 4,700억엔의 약 1.4% 규모임. 건강드링크류의 약 70%가 인삼을 배합하고 있는 등 건강식품 보조성분으로 시장에 확고히 자리 잡고 있음.
- 일본내 인삼 생산량은 연간 30톤 규모에 불과하여 수요량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, 원료용은 중국산이, 제품류는 한국산이 주류를 이루고 있음.
 - 중국산 인삼 가격은 중국내 수요증가 및 재배규제 등의 영향으로 '11년 3,000엔/kg에서 '13년 6,000엔/kg 수준으로 급등하였음.
- 전통적으로 인삼은 대표적인 자양강장·피로회복 건강식품으로서 주로 중장년 남성층을 대상으로 안정적인 수요를 확보하여 왔으나, 일본제분(日本製粉)의 시장참여로 여성층 공략에 성공함으로써 시장확대 계기가 마련되었음.
 - 일본제분은 「닛폰 브랜드」로 한국인삼공사 홍삼제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주부층을 대상으로 「냉증대응」, 「미용」 효과를 홍보하며 홍삼시장 확대에 기여하고 있음

< 일본의 인삼 수입실적 >

(단위 : Kg, 천엔)

구 분	2011		2012		2013	
	물량	금액	물량	금액	물량	금액
한 국	7,937	84,477	10,970	168,753	6,695	100,701
중 국	573,404	1,688,150	850,251	4,221,278	633,305	3,881,097
기 타	2,431	35,843	1,280	31,989	2,097	73,077
합 계	583,772	1,808,470	862,501	4,422,020	642,097	4,054,875

* HS 1211.20. 원료삼(수삼, 홍삼, 백삼, 홍삼분, 백삼분, 인삼부산물) 기준임 ※ 제품류 제외

3. 관련업계 동향

- (A사) 전국 200여 대리점을 통한 대면판매 중심으로 주 구매층은 50~70대 여성층임. 인삼은 특화된 효능제시가 어려워 판매가 쉽지 않은 점이 있음. 성분배합을 통한 효능 특화 및 제품다양화 필요. 최근에는 발효인삼이 효능 체감도가 높아 주목을 받고 있음.
- (B사) 수요처의 1회 발주량이 많지 않아 재고부담 해소를 위해 일본내 병입방식으로 전환. 소비세 인상을 앞둔 3월까지의 판매가 호조를 보였으나 4월 들어 다소 침체됨. 대부분의 건강보조제품에 인삼이 보조성분으로는 이용되고 있으나 인삼이 중심이 된 제품은 거의 없음. 여러 계층에 걸쳐 인삼 효능에 대한 인식 정착을 위한 마케팅을 지속하고 있음

4. 시사점

- 고령화로 인해 건강식품 시장은 지속 성장할 전망이며 특히 30~40대 직장여성이 시장을 견인할 전망으로 직장여성 등 잠재적 수요층 개척을 위한 홍보전략 필요
 - 성별 건강식품 시장규모는 여성 8,700억엔, 남성 6,000억엔
 - 직장여성 관심분야는 피부미용, 영양균형, 건강유지·증진 순임
- 미용 등 여성층 관심분야 대응을 위해 복수 성분을 배합한 제품개발 등 제품 다양화 노력 필요
 - 최근 일본의 건강식품 트렌드는 “복합성분”, “복용 편의성”

< 일본내 주요 인삼제품 현황 >

			
일본제분 정관장 홍삼엑기스	일화 인삼농축액	고바야시제약의 흑마늘인삼(일본산)	DHC의 인삼환제품 (일본산)